

# 춘분 앞두고 때 아닌 폭설... 시민 불편·사고 속출

# SOCIETY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 남해고속도로 41대 추돌 등 광주·전남 7건 사고 접수 차량 거북이 운행 등 지·정체...뱃길·하늘길 통제도

절기상 춘분(20일)을 이틀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 때 아닌 폭설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했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내륙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

한때 광주와 전남 7개 시·군(담양·곡성·구례·장성·보성·함평·영광)에 발효

됐던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주요 지점 적설량은 보성 7.8cm, 화순 7.5cm, 곡성 6.5cm, 광양 6.1cm, 구례 5.8cm, 광주 5.4cm, 담양 4.2cm, 장성 4.0cm, 함평 3.9cm, 영광 2.9cm 등을 기록했다.

8cm에 이르는 폭설로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도 연이어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광주·전남소방본부에 접수된 눈 관련 사고는 총 7건(광주 0

건·전남 7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41분께 전남 보성군 검백면 남해고속도로(목포 방면) 초암산터널 인근에서 45인승 관광버스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후 뒤따르던 차량들이 눈길에 속도를 줄이지 못해 총 41대의 차량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자 1명이 목과 허리 부분에 통증을 느낀 것을 제외하고 11명이 경미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경찰이 벌교 나들목부터 1km 구간에 대한 차량 통제를 진행하면서 2시간여 가까이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 등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때늦은 3월 중순 폭설은 출근길 시민들 도 불편하게 했다.

직장인들은 쏟아지는 눈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었고, 각급 학교 학생들은 등교 준비를 서둘렀다.

눈이 쌓이면서 행인들이 미끄러지거나 종종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차량들도 거북이걸음을 이어가면서 곳곳에서 지·정체가 빚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난데없는 폭설이 신기한 듯 휴대전화로 눈이 내리는 장면을 담은 모습도 보였다.

며칠 전까지 봄기운에 가벼워졌던 시민

들의 옷차림도 이날은 상반된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두터운 겨울옷을 꺼내고 칼바람에 대비해 목도리, 마스크,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직장인 정모씨(38)는 “눈이 내린다는 소식에 ‘무슨 봄에 눈이 내리냐’고 코웃음을 쳤는데 이 정도로 많이 올지 몰랐다. 일찍잡지 출근했는데 버스가 통 움직이지 않았다. 지각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눈과 함께 뱃길과 하늘길이 통제되기도 했다. 전남 해상에서는 연안 52개 항로 72척 선박 중 40개 항로 54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광주·여수 공항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도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광주 3월 중순 이례적인 폭설 이유는?

### 최심적설량 5.4cm...북극 찬공기·서해상 극저기압 영향

18일 내린 폭설과 한파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극저기압’(Polar Lows)이 원인

으로 분석됐다.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년) 3월 중 광주지역에 눈이 관측된 해는 2015~2020년, 2024년으로 확인됐다.

지난 30년 동안 3월에 눈이 내린 일수는 평균 2.4일이다. 최근 10년으로 좁히면 1.3일이며, 최근 5년간은 0.6일이었다.

이런 추세를 보면 3월 중순에 눈이 내리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 3월15일 이후에 눈이 내린 날로 좁혀보면 2018년(3월 20·21일, 4월 7일)과 2019년(3월 15일)의 4일 뿐이다.

이중 2018년(3월 21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낙이나 진눈깨비였다.

광주에서 관측 이래 3월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렸던 해는 2001년(3월8일), 적설량은 8.8cm였다.

이번 폭설은 북극에서 영하 40도의 찬공기를 동반한 소용돌이가 우리나라 상공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서해상에 강한 저기압이 발달, ‘극저기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10도 안팎의 서해상에 해기차(해수와 대기의 온도 차)에 의해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내륙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쏟아졌다.

이번 극저기압은 우랄산맥 쪽에 형성된 기압능 때문에 영하 40도 안팎의 북극 찬공기가 수온이 영상 10도 안팎인 서해 위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발생했다.

극저기압은 200~1km의 크기이며 16~36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급격히 발달했다가 사라지는 특성 때문에 예측과 포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이날 오후 1시 기준 광주

의 최심적설량은 5.4cm를 기록했다. 이는 3월 중순 광주지역에 7년 만이자 2000년

대 들어 7번째 대설특보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19일 아침부터는 차차 맑아지면서 기온이 오르겠다”면서 “2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도 영상권(1~8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왕충민 기자 yhb9792@

## 공수표 발행...30년 해외도피 60대 실형 구형

1억원 상당의 공수표를 발행·지급한 뒤 30년간 해외로 도피한 6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 단독 전회속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995년 2월부터 4월까지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도 처리된 지 역의 한 은행 자गत 수표 1억150여만원을 채권자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식으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적으로부터 사업체를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자금난에 처하자 이른바 ‘공수표’만 남긴 채 중국으로 달아나 30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도피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됐고 A씨는 최근 자진 귀국한 뒤 자수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장기간 해외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전남지역 항일독립운동단체가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尹 조속한 파면 촉구... 항일독립정신 모독”

### 광주 전남 항일독립운동단체·마을공동체 기자회견

광주·전남지역 항일독립운동단체, 광주 마을공동체 등 시민·역사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광주 항일독립운동단체는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통해 역사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에는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 역위원회, 바른역사시민연대,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호남 의열단 등 광주지역 6개 항일독립운동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친일 역사쿠데타를 통해 항일독립정신을 모독했고, 가해자 일본에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며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마저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2·3 내란사태가 100일 넘게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은 끝 모를 파멸의 길 을 걷고 있다”면서 “최근 스웨덴 예테보

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 민주주의’ 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했고,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심화 정도를 나타내는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서 179개국 중 48위를 기록하며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역사·시민단체들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 탄핵만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광주 마을공동체도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광주 5개 구 활동가들과 44개 연대 단체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는 “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국민의 기본권

을 유린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취임 후 지금까지 비검함과 물상식, 포악무도함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했다”면서 “우리는 군화발에 짓밟힌 국민의 자유와 폭력에 희생된 무고한 생명과 억눌린 공동체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을공동체는 윤석열 정부의 마을공동체 예산 삭감과 지원 조직 폐지를 지적하며 “이는 주민자치와 시민 참여를 가로막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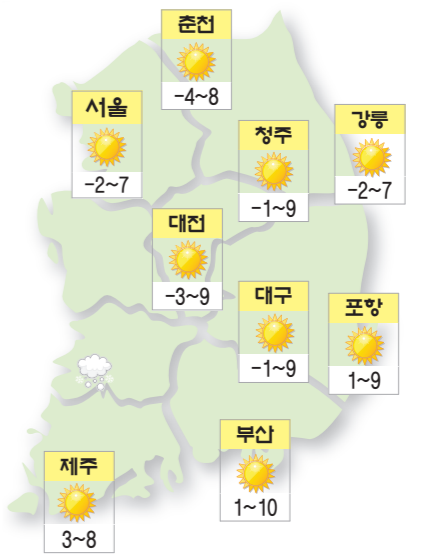
그러면서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현 상황을 지켜보며, 결코 좌절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마을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며 “끝까지 마을공동체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왕충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예보 06:38, 달출 23:31, 예보 18:43, 달진 08:44



광주	☀️	-1~9
목포	☀️	2~7
여수	☀️	0~9
순천	☀️	-1~9
구례	☀️	-4~9
광주	☀️	0~8
임도	☀️	1~9
죽산도	☀️	3~8
진남	☀️	고풍
고풍	☀️	-2~10
진도	☀️	1~8

목포	미물(고)	04:59 / 16:53
	셀물(저)	10:06 / 22:11
여수	미물(고)	11:34 / --:--
	셀물(저)	05:32 / 17:30

### 목포 아파트 불·5명 병원 이송

목포시 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주민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8일 목포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7분 목포시 옥암동의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23대, 소방대원 55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5분 만인 오전 10시52분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아파트 일부 주민이 대피했으며, 5명이 연기를 마셔 목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 시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재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